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연구동향 분석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

201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왕 현 수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연구동향 분석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

김 명 속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왕 현 수

인 준 서

왕현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최근 6년(2010년~2015년)간 전국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3,160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차후 음악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 교육대학원 및 음악교육전공의 설치여부를 조사하고, 국회도서관과 각 대학교의 도서관 사이트를 통하여 음악교육전공 논문 3,160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립한 분류기준에 따라 17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각 영역은 음악교육론,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특수음악교육, 음악교육공학, 교수·학습 방법,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가창, 기악, 감상, 창작, 국악, 다문화, 유아음악교육, 음악교육평가, 음악교사, 국가정책,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 내에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또한 영역에 의한 연도별, 지역별, 학교별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별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기악 영역이 382편(12.1%),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영역이 375편(11.9%),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영역이 361편(11.4%)으로 상위 3개 영역에 집계되었다. 가창, 기악, 감상, 창작, 국악 등 실기 연구의 여러 영역은 음악교육론과 같은 이론 연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영역에 의한 연도별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2010·2011년에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영역이, 2012·2013년에는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영역이, 2014·2015년에는 기악 영역이 그 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영역에 의한 지역별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15개 지역 중 서울의 논문편수가 1,173편(37.1%)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259편(8.2%), 충북 253편(8%), 부산 228편(7.2%)의

순으로 논문이 배출되었다. 영역에 의한 53개교의 학교별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가 193편(6.1%)으로 1위, 경희대학교가 173편(5.5%)으로 2위, 이화여자대학교가 163편(5.2%)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배출한 학교는 수도권에서 8개교, 비수도권에서 3개교로 권역 간 교육적 격차를 보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2
II. 이론적 배경	3
1. 교육대학원 소개 및 현황	3
2. 선행연구 고찰	10
III. 연구방법	16
1. 연구대상	16
2. 연구기간	17
3. 연구방법 및 절차	18
4. 분류기준	18
IV. 연구 분석 및 결과	23
1. 영역별 연구동향 분석	23
2. 영역에 의한 연도별 연구동향 분석	46

3. 영역에 의한 지역별, 학교별 연구동향 분석 49

V. 결론 55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II-1> 전국 교육대학원 및 음악교육전공 현황	6
<표 II-2> 초등음악교육전공이 설치된 교육대학원	8
<표 II-3> 기타 전공이 설치된 교육대학원	9
<표 III-1> 본 연구대상에 포함된 지역별 학교명	17
<표 III-2> 연구내용 및 연구기간	17
<표 III-3> 연구의 분류기준에 따른 세부항목	19
<표 IV-1> 영역별 연구동향의 전체적인 분석	24
<표 IV-2> 음악교육철학 영역의 분류 결과	26
<표 IV-3> 음악교육심리 영역의 분류 결과	27
<표 IV-4> 교육과정 영역의 분류 결과	28
<표 IV-5> 교과서·지도서 영역의 분류 결과	29
<표 IV-6> 특수음악교육 영역의 분류 결과	30
<표 IV-7> 음악교육공학 영역의 분류 결과	31
<표 IV-8> 음악교수법 영역의 분류 결과	32
<표 IV-9> 교수·학습 방법 영역의 분류 결과	33
<표 IV-10> 통합학습 영역의 분류 결과	34
<표 IV-11> 기타지도 영역의 분류 결과	35
<표 IV-12> 가창 영역의 분류 결과	36
<표 IV-13> 기악 영역의 분류 결과	37
<표 IV-14> 감상 영역의 분류 결과	38
<표 IV-15> 창작 영역의 분류 결과	39
<표 IV-16> 국악 영역의 분류 결과	39
<표 IV-17> 다문화 영역의 분류 결과	40

<표 IV-18> 유아음악교육 영역의 분류 결과	41
<표 IV-19> 음악교육평가 영역의 분류 결과	42
<표 IV-20> 음악교사 영역의 분류 결과	43
<표 IV-21> 정규 교육과정 외 음악활동 영역의 분류 결과	44
<표 IV-22> 기타 영역의 분류 결과	45
<표 IV-23> 영역에 의한 연도별 연구동향 분석	47
<표 IV-24> 영역에 의한 지역별 연구동향의 분석	51
<표 IV-25> 논문편수 상위 3개 학교의 영역에 의한 분석 결과	53

그림 목 차

<그래프 IV-1> 영역에 의한 지역별 연구동향의 분석	49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예술이 지닌 가치가 교육적으로 활용되면서 현 시점의 음악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시대·사회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음악교육이 중요성을 더해감에 따라 발전과 변화의 근간이 되는 음악교육연구 또한 막중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음악교육이 시대에 맞는 발전된 양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배경으로서 풍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음악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은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최상위 교육체계로서, 학기마다 석사학위 논문을 배출하여 음악교육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교육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논제들을 정리한다면 음악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등 교육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교육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향 분석은 시대 변화에 따른 음악교육의 양상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관심으로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는 본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한 신지은¹⁾, 여하나²⁾, 김송미³⁾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가 행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6년간 이루어진 전국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석사학위 논문의 동향을 분석하여 현 음악

1) 신지은(2004). 한국 음악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의 연구동향에 대한 소고(1999~2003).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 여하나(2009).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2003~2007).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3) 김송미(2011).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2008~2010).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연구의 방향을 살펴보고, 차후 음악교육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분류기준을 연구영역별로 정립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둘째, 전국 교육대학원과 음악교육전공 및 기타 관련 전공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셋째,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영역별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넷째,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영역에 의한 연도별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다섯째,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영역에 의한 지역별, 학교별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첫째, 교육대학원의 정의 및 역사, 교육체계를 소개하고, 전국 교육대학원 및 음악교육전공 설치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교육대학원 소개 및 현황

가. 교육대학원 소개

1) 교육대학원의 정의 및 역사

교육대학원은 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추어가는 양성교육과 현직 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계발을 위한 재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범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더불어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교육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서울대학교에 최초의 교육대학원이 설치되었다. 또한 1965년 10월 8일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교육대학원이 중등교원 양성기관이 되었다. 교육대학원은 이론과 실제에 융통한 교육 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데 공헌하였다.⁴⁾

하지만 1980년대 이르러 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수가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중등교원 양성자가 급격히 늘어 강의 당 과다한 학생 수, 전임교원의

4) 김갑성 외 3명(2008). **교원양성기관 평가체제 정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18. 재인용.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교육대학원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예체능 계열 과목의 교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였으나, 2001년부터 7차 교육과정에서 11~12학년을 대상으로 예체능 교과가 선택교과가 됨에 따라 교사 수요가 감소하여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⁵⁾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원은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하여 교육 전문가를 양산할 수 있고, 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교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⁶⁾

2016년 현재 전국의 교육대학원 수는 125개교에 이르렀으며, 시대·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제 교육대학원은 기존의 역할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사회로 진입한 시점에서 교육대학원의 수요 계층은 현직 교사나 예비 교사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 및 기업의 교육 관련 업무 종사자, 사교육 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교육대학원의 이러한 질적 전환은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변화일 것이다.⁷⁾

2) 교육대학원의 교육체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은 계열 상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을 교육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으로 분류된다. 이는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교육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과 전문 직업분야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 개발이 교육목적인 전문대학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교육대학원은 교육학 및 각 전공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교육계 발전에 기여함

5) 김갑성 외 3명(2008). 전계서. p.18. 재인용.

6) 김명수(2002). "교사양성체제의 쟁점과 개편 방향".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 20. pp.39-59

7) 김갑성 외 3명(2008). 전계서. p.20.

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양성기관이다. 교육대학원은 계절제와 야간제, 4학기제와 5학기제, 논문 졸업제와 무논문 졸업제 등 학교마다 다양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⁸⁾ 또한 각 학교마다 24~30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그 중 교직과목을 5~8학점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학점은 전공과목으로 채워야 한다. 이는 현직교사의 해당 유무, 교원자격증 취득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나. 교육대학원 및 음악교육전공 현황⁹⁾

2016년 현재, 전국의 교육대학원은 125개교이며, 음악교육전공과 초등음악교육전공이 설치된 학교는 49개교이다. 다음의 <표 II-1>은 전국의 교육대학원 및 음악교육전공 현황을 16개의 시·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서 초등음악교육전공의 경우 학교명 옆에 *표시를 하였고, 음악교육과 관련된 기타 전공이 설치된 경우 기타 란에 설치 여부를 기입하였다.

8) 박수정(2016). “교육대학원 교사양성교육의 성찰과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2), pp.829-846.

9) 교육통계연구센터.(<http://kess.chedi.re.kr/index> 2016.7.23.10:30 접속), 각 대학교 사이트 참조.

<표 Ⅱ-1> 전국 교육대학원 및 음악교육전공 현황

지역	순서	학교명	전공	기타	순서	학교명	전공	기타
강원	1	가톨릭관동대학교	○		4	상지대학교		
	2	강릉원주대학교	○		5	춘천교육대학교*		○
	3	강원대학교	○					
경기	1	가천대학교	○		8	수원대학교		
	2	가톨릭대학교			9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3	강남대학교			10	아주대학교		
	4	경기대학교			11	안양대학교		
	5	단국대학교	○		12	용인대학교		○
	6	대진대학교			13	한신대학교		
	7	성결대학교			14	협성대학교		
경남	1	경남대학교			4	진주교육대학교*		○
	2	경상대학교	○		5	창원대학교	○	
	3	인제대학교						
경북	1	금오공과대학교			5	안동대학교		
	2	대구가톨릭대학교	○		6	영남대학교	○	
	3	대구대학교			7	위덕대학교		
	4	동양대학교			8	한동대학교		
광주	1	광신대학교			5	전남대학교	○	
	2	광주교육대학교*	○		6	조선대학교	○	
	3	광주여자대학교			7	호남대학교		
	4	남부대학교						
대구	1	경북대학교	○		3	대구교육대학교*	○	
	2	계명대학교	○		4	대구한의대학교		
대전	1	대전대학교			4	충남대학교	○	
	2	목원대학교	○		5	한남대학교		
	3	배재대학교						
부산	1	경성대학교			6	부산교육대학교*	○	
	2	고신대학교			7	부산대학교	○	
	3	동아대학교	○		8	부산외국어대학교		
	4	동의대학교			9	신라대학교		
	5	부경대학교			10	한국해양대학교		
서울	1	건국대학교	○		18	성균관대학교		
	2	경희대학교	○	○	19	성신여자대학교	○	

지역	순서	학교명	전공	기타	순서	학교명	전공	기타
	3	고려대학교			20	세종대학교		
	4	광운대학교			21	숙명여자대학교	○	
	5	국민대학교	○		22	송실대학교		
	6	덕성여자대학교			23	연세대학교	○	
	7	동국대학교			24	이화여자대학교	○	
	8	동덕여자대학교			25	장로회신학대학교		
	9	명지대학교	○		26	중앙대학교	○	○
	10	백석대학교			27	총신대학교		
	11	상명대학교	○		28	추계예술대학교		○
	12	서강대학교			29	케이씨대학교		
	13	서울교육대학교*			30	한국외국어대학교		
	14	서울대학교	○		31	한국체육대학교		
	15	서울시립대학교			32	한성대학교		
	16	서울여자대학교			33	한양대학교	○	○
	17	성공회대학교			34	홍익대학교		
울산	1	울산대학교						
인천	1	경인교육대학교*	○		3	인하대학교		
	2	인천대학교						
전남	1	동신대학교			3	순천대학교		
	2	목포대학교	○					
전북	1	군산대학교			5	전북대학교	○	
	2	서남대학교			6	전주교육대학교*		○
	3	우석대학교	○		7	전주대학교	○	
	4	원광대학교	○					
제주	1	제주국제대학교			2	제주대학교*	○	
충남	1	건양대학교			6	순천향대학교		
	2	공주교육대학교*	○		7	중부대학교		
	3	공주대학교	○		8	한서대학교		○
	4	나사렛대학교			9	호서대학교		
	5	선문대학교						
충북	1	극동대학교			5	청주대학교	○	
	2	서원대학교	○		6	충북대학교		
	3	세명대학교			7	한국교원대학교*	○	
	4	청주교육대학교*		○	8	한국교통대학교		

<표 II-1>에서 *표시가 된 초등음악교육전공이 설치된 12개교의 교육대학원을 시·도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 초등음악교육전공이 설치된 교육대학원

순서	지역	학교명	순서	지역	학교명
1	강원	춘천교육대학교	7	인천	인천교육대학교
2	경남	진주교육대학교	8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3	광주	광주교육대학교	9	제주	제주대학교
4	대구	대구교육대학교	10	충남	공주교육대학교
5	부산	부산교육대학교	11	충북	청주교육대학교
6	서울	서울교육대학교	12	충북	한국교원대학교

<표 II-2>에 따르면, 제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교육대학교의 교육대학원에 초등음악교육전공이 설치되어 있다. 제주 지역에서는 교육대학교가 아닌, 국립 일반대학교인 제주대학교에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2008년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교가 통합되어 제주대학교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¹⁰⁾

또한 <표 II-1>의 기타 란에서 음악교육 관련 기타 전공의 설치 여부를 기입한 10개교의 전공명은 다음과 같다.

10) 제주대학교 홈페이지(<http://www.jejunu.ac.kr/>) 참조.(2016. 12. 9. 16:00 접속)

<표 II-3> 기타 전공이 설치된 교육대학원

순서	지역	학교명	기타 전공
1	강원	춘천교육대학교	국악교육
2	경기	용인대학교	국악교육
3	경남	진주교육대학교	국악교육, 문화예술교육
4	서울	경희대학교	실용음악교육
5	서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 국악전문교육, 음악치료교육
6	서울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교육, 국악문화예술교육
7	서울	한양대학교	예술치료교육
8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국악교육
9	충남	한서대학교	음악치료교육
10	충북	청주교육대학교	오르프교육

<표 II-3>을 통하여 볼 때, 2016년 현재 전국 교육대학원에 설치된 음악교육과 관련된 기타 전공으로는 국악교육, 국악전문교육, 국악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실용음악교육, 오르프교육, 예술치료교육, 음악치료교육이 있다. 총 6개교에서 교육대학원 내 국악교육전공이 설치되었는데, 이 중 중앙대학교에서만 예외적으로 국악교육대학원에 국악교육전공, 국악전문교육전공이 설치되어 있다. 국악교육전공은 국악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분화·전문화되어 국악전문교육전공과 국악문화예술교육전공으로 나뉘었다. 음악치료교육 전공은 한서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대학교는 국악교육대학원에 포함되어 있다. 예술치료교육 전공은 한양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이 중요성을 더해감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공, 실용음악교육전공, 오르프교육전공이 신설되었다. 앞으로도 음악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로 음악교육 내 다양하고 전문화된 전공이 개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교육대학원이 아닌 일반대학원의 음악교육전공 협동과정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석사

학위 논문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전반적인 음악교육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음악교육전공과 초등음악교육전공의 석사학위 논문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전공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여기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연구범위 이전의 음악교육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과 연구의 분류체계를 고찰하였다.

미국의 음악학술전문지인 JRME(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한국 음악교육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김미숙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발표된 272편의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영역, 연구영역별 대상으로 나누어 논문을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방법에서는 기술적 연구가 절반에 달하였으나 4영역 모두 고른 분포를 보였다. 연구대상에서도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조기교육열이 높은 한국과 달리 비교적 유아대상의 연구는 낮은 편이 특징적이었다. 연구영역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수-학습 영역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반대로 교과교육원론 영역의 비율은 가장 낮았는데, 이는 문헌연구 중심의 한국 연구방법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음악학습심리 영역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실험적 연구와 기술적 연구가 대부분인 연구방법으로 인한 것이라 보았다.¹¹⁾

국외의 음악교육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 석문주는 1990년대부터 2004년까지 국외의 음악교육

11) 김미숙(2001). "JRME(1991년~2000년) 논문 경향에 대한 소고", *음악교육연구*, 20(1), pp.1-19.

학술지인 Update, JRME, CRME, IJME 4권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영역의 3가지 분석 틀을 설정하였고, 연구영역에서는 음악교육의 학문적 성격에 따라 10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새로운 연구방법, 연구설계, 연구기법, 연구도구의 활용을 소개하여 음악교육연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특히 음악교육현장에 근거한 이론 연구가 많은 것은 단순한 이론의 소개에 그치는 한국 음악교육연구가 지향해야 할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교사라는 이분법을 극복하여 교사가 자기 실천을 연구하는 ‘당사자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²⁾

중등교원 및 예비교사들의 관심분야와 연구의 동향 및 의식을 파악하고, 음악교육연구의 질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 주성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 14개 교육대학원의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1,104편의 연도별, 학교별 논문편수 현황을 분석하고, 주제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분류기준은 양적연구/질적연구, 국악/서양음악, 그 외 연구의 목적 및 대상에 따라 9개의 대분류 항목을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14개교의 논문편수는 전국 교육대학원 논문편수의 50.8%에 해당하였으며, 9개의 항목에서 지도안·지도방안 연구가 41.5%로 가장 많았고, 국악, 영향·효과·상관 및 실험사례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논문 주제의 유형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도, 활용도가 높은 교수-학습모형의 개발이 가장 선호되는 현상으로, 연구자는 현장 중심의 조사연구의 확대를 통해 질적, 양적 연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¹³⁾

문헌학적 접근을 통하여 음악교육의 체계적인 계승·발전을 이루고자 한 김수정은 음악교육 관련 논문이 처음 발표된 1966년부터 1998년까지의 음악교육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1,736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대상 논문들

12) 석문주(2004).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새로운 접근”, *음악교육연구*, 27, pp.91-128.

13) 주성희(2016).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논문의 주제유형 분류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 pp.961-976.

은 외형적으로 장르별, 장르별-연도별, 장르별-학교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내용적으로 14개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과정이 18%로 가장 많았고, 장르별-연도별 경향에서는 10년 이상의 세월 차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연구가 다수 발견되었다. 학교별-연도별 연구경향에서는 논문의 대부분이 서울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지방교육의 질적 낙후를 야기하므로 국가 차원의 제도·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였다.¹⁴⁾

매년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논문을 분류하는 작업을 통하여 음악연구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최연희는 1997년부터 2000년 2월까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538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1997년 2월 이전의 경향분석, 장르별 분류 및 분석, 장르별-연도별 분석, 비사범대 계열과 사범대 계열 학교의 논제 비교분석을 하였고, 14개의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헌자료 분류의 이론을 분류의 기준과 검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1997년 2월 이전의 경향분석에서는 성악분야의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작곡분야와 국악분야의 연구가 증가하였다. 장르별 분석에서 교육과정 연구가 13%로 가장 많았고, 국악교육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컴퓨터 음악교육과 대중음악을 포함한 기타분야의 연구가 증가하였다. 비사범대 계열과 사범대 계열 학교의 논제 비교 분석에서는 사범대의 좁은 연구범위와 참신한 논제 연구, 비사범대의 다양한 연구범위와 추상적이고 중복되는 논제 연구가 특징으로 연구자는 이들이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¹⁵⁾

음악교육 전반의 흐름과 음악교육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교육 역사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신지은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 교육대학원의 음악교육학 석사학위논문 2,073편의 동향을 분석

14) 김수정(2000). 한국 음악교육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의 총람 및 분석 (1966~1998).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15) 최연희(2000). 음악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의 경향 분석 연구-국내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과를 중심으로 (1997.2~2000.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하였다. 연구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연구주제들을 아울러 15개의 영역으로 분류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전에 기타영역에 속하였던 ‘컴퓨터 및 대중음악’ 관련연구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멀티미디어 교육’으로 분류하였으며, 특정한 영역에 속하지 않는 음악교육전반에 관한 논제들은 ‘음악교육의 실제’라는 항목에 포함시켰다. 또한 영역별-연도별, 지역별-학교별 연구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새로운 연구논제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가 13.7%로 가장 많았으며, 국악교육과 피아노 교육이 그 뒤를 이었는데, 특히 국악교육의 증가는 우리의 것을 바로 알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관심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음악교육에 멀티미디어를 적용한 연구가 급진적인 증가 추세에 있었고, 음악과 타 영역을 연계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¹⁶⁾

한국의 음악교육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발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숙양은 서울 소재 교육대학원 중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7개교의 음악교육 관련 석사학위 논문 215편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별, 연구영역별, 음악교수·학습방법별, 음악교육과정별로 각각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별 분석에서는 초등과 청소년 대상의 연구가 월등하게 많아 특정 대상에 치우쳐 있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에 연구자는 다양한 연령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위주의 연구 방법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는 실천과 연구에 대한 연결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론 소개 수준에 머무르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연구영역별 분석에서는 음악교육과정 영역이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는데, 그 중 교과서의 감상 영역 분석에 치중되었다. 음악교수·학습방법에서도 전통적 교수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균형있는 음악교육 발전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16) 신지은(2004). 전게서.

고 지적하였다.¹⁷⁾

음악교육 전공자들이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여, 발전적인 음악교육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여하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488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16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분석 결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영역이 18%로 가장 많았고, 기악교육, 음악교육 관련 기타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자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영역에서 중복, 편중되는 연구가 많은 것은 발전적인 현상이 아님을 지적하며, 특히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이 발표된 시점에서 교과서 분석 연구는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반면, 음악교육평가 영역이 학교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1%에 지나지 않음을 아쉬워하며 연구가 촉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음악교육전공과 무관한 주제의 연구경향, 연구의 주제가 학문적 가치나 깊이가 없는 논문들이 상당수 있음을 지적하였다.¹⁸⁾

음악교육의 현 위치를 파악하여 음악교육의 방향 모색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김송미는 2008년부터 2010년 2월까지의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1,367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12개의 분류기준을 설정하였고, 전국의 교육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내 음악교육전공의 현황을 정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전의 연구동향과 본 연구범위의 연구동향을 비교하였다. 또한 영역별 연구동향 분석뿐만 아니라, 영역에 따른 연도별 연구동향과 지역·학교별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음악교육·학습방법의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해, 국악 등의 통합영역인 활동영역별 연구가 32.6%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정의 연구와 교과서 분석의 음악교육과정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자는 지도방안에만 치중하여 나머지 다른 영역의 연구가 소홀한 점은 지적받아 마땅하지

17) 신숙양(2005). 음악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 동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8) 여하나(2009). 전계서.

만, 교과교육 전문가로서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는 교육대학원의 목표와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같은 주제라도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¹⁹⁾

지금까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학위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특정 주제에 의한 논문,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한 논문, 전체를 분석한 논문이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특정 주제에 의한 연구가 급증하였지만,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음악교육연구의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음악교육 전공자들이 음악교육연구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여 음악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음악교육연구의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논문 분석을 위한 분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된 하나의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타 연구자의 분류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분류기준을 위한 참고자료가 중복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문헌고찰 및 연구범위에서 나타난 주제의 동향을 반영하여 17개 영역의 분류기준을 정립하였다. 또한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전체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초등음악교육전공을 제외시킨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초등음악교육전공은 음악교육의 하위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음악교육전공을 포함시켰다.

19) 김송미(2011). 전계서.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국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로 최근 6년(2010년~2015년)간 3,160편의 논문을 수집하여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후 동향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대상, 연구기간, 연구방법 및 절차,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도서관에 제출된 국내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국회도서관은 1945년 이후 국내에서 수여된 학위논문을 망라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서지로서, 학위논문 목록을 DB(Data Base)로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논문 수집 단계에서 국회도서관이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연구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논문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악교육전공 논문이 배출된 대학교의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연구대상에 포함된 대학교는 2016년 현재, 음악교육전공이 설치된 교육대학원 49개교와 지금은 폐과되었으나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4개교(경남대학교, 고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대진대학교)를 합한 총 53개교이다.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지역별 학교명은 <표 III-1>과 같이 목록으로 제시하였다.

<표 Ⅲ-1> 본 연구대상에 포함된 지역별 학교명

지역	학교명	학교 수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4
경기	가천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3
경남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4
경북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	2
광주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3
대구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3
대전	목원대학교, 충남대학교	2
부산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4
서울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14
인천	경인교육대학교	1
전남	목포대학교	1
전북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5
제주	제주대학교	1
충남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2
충북	서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4
총합		53

2. 연구기간

본 연구는 2015년 12월부터 선행연구 고찰 및 문헌연구를 시작으로 2016년 11월까지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연구내용 및 연구기간

순서	연구내용	연구기간
1	선행연구 고찰 및 문헌연구	2015년 12월 ~ 2016년 7월
2	연구대상 선정 및 논문수집	2016년 2월 ~ 5월
3	이론적 배경 연구	2016년 4월 ~ 7월
4	문헌연구를 통한 분류기준 정립	2016년 6월 ~ 9월

5	분류기준에 따른 논문 분류	2016년 6월 ~ 10월
6	분류에 따른 연구동향 분석	2016년 8월 ~ 11월
7	연구결과 작성	2016년 9월 ~ 11월

3. 연구방법 및 절차

첫째,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의 상세검색 페이지에서 전공을 ‘음악교육’으로, 학위구분을 ‘석사’로, 발행연도를 2010년부터 2015년으로 설정한 후 학위논문을 검색하여 출력된 논문목록을 엑셀파일에 저장하였다.

둘째, 논문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음악교육전공이 설치된 각 대학교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논문목록을 비교·대조하였다.

셋째, 문헌연구 고찰을 통하여 본 연구의 분류기준을 정립하였다.

넷째, 수집된 논문의 제목 및 국문초록에 근거하여 영역 내 상세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다섯째, 분류된 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그 결과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고,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4. 분류기준

본 연구는 “2009개정 교육과정”과 「음악교육학 총론」²⁰⁾, 김미숙²¹⁾, 석문주²²⁾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분류기준을 정립하였다. 각 영역은 음악교육론,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특수음악교육, 음악교육공학, 교수·학습 방법,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가창, 기악, 감상, 창작, 국악, 다문화, 유

20) 민경훈 외 11명(2015). 전게서.

21) 김미숙(2001). 전게서.

22) 석문주(2004). 전게서.

아음악교육, 음악교육평가, 음악교사, 국가정책, 기타로 총 1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에 대한 세부항목은 <표 Ⅲ-3>으로 제시하였다.

<표 Ⅲ-3> 연구의 분류기준에 따른 세부항목

분류기준		세부항목	
음악 교육 론	음악교육철학	1) 음악교육철학 및 심미적 관점	
		2) 교육철학 및 사상가	
		3) 음악교육과 인간형성	
	음악교육심리	1) 인지적 측면	
2) 정의적 측면			
교육 과정 및 교과 서 · 지도 서	교육과정	1) 한국 교육과정	(1) 유아·초등 (2) 중등 (3) 대학교·대학원
		2) 외국 교육과정	
	교과서 · 지도 서	1) 가창	
		2) 기악	
		3) 감상	
		4) 창작	
		5) 국악	
		6) 다문화	
		7) 체제 및 기타 영역	
		8) 기타	
특수음악 교육	1) 영재교육		
	2) 음악치료		
	3) 특수교육		
음악교육 공학	1) 지도방안 연구	(1) ICT 및 스마트 교육	
		(2) 프로그램 활용	
		(3) 자료 활용	
		(4) 기타	
2) 질적·양적 연구			
3) 문헌 연구			
교수 · 학습 방법	음악 교수법	1) 전통적 음악교수법	
		2) 현대 음악교수·학습 이론	
	교수 · 학습 방법	1) 공동학습모형	
		2) 구성주의	

	학습방법	3) 표상이론	
		4) ASSURE 모형	
통합 학습 및 기타 지도	통합학습	1) 지도방안 연구	(1) 교과 통합
			(2) 국악
			(3) 학습형태별
			(4) 기타
		2) 통합학습 관련 문헌 연구	
		3) 양적·질적 연구	
	기타지도	1) 음악 장르에 의한 지도방안 연구	(1) 현대음악
			(2) 대중음악
			(3) 기타
		2) 학습내용에 의한 지도방안 연구	(1) 음악이론별
			(2) 영역별
		3) 활용에 의한 지도방안 연구	
4) 시창·청음·초견 연구			
5) 기타 지도방안 연구			
가창	1) 합창	(1) 지도방안 연구	
		(2) 질적·양적 연구	
		(3) 문헌 연구	
	2) 가창	(1) 지도방안 연구	
		(2) 변성기·발성 연구	
		(3) 문헌 연구	
		(4) 질적·양적 연구	
	기악	1) 건반악기	
2) 현악기			
3) 관악기			
5) 오케스트라 및 합주			
6) 기타			
감상	1) 지도방안 연구	(1) 음악 장르별	
		(2) 학습형태별	
		(3) 기타	
	2) 질적·양적 연구		
창작	1) 지도방안 연구		
	2) 기타		
국악	1) 지도방안 연구	(1) 가창	
		(2) 기악	
		(3) 감상	

		(4) 창작
		(5) 학습형태별
		(6) 기타
	2) 문헌 연구	
	3) 질적·양적 연구	
다문화	1) 지도방안 연구	(1) 가창
		(2) 기악·감상·창작
		(3) 기타
	2) 문헌 연구	
3) 질적·양적 연구		
유아음악 교육	1) 인간형성 및 심리 관련 연구	
	2) 기악	
	3) 질적·양적 연구	
	4) 기타 교육 연구	
음악교육 평가	1) 수행평가	
	2) 기타 평가 개발	
	3) 질적·양적 연구	
음악교사	1) 문헌 연구	
	2) 질적·양적 연구	
국가 정책	정규교육과정 외 음악활동	1) 방과 후 특기적성
		(1) 지도방안 연구
		(2) 질적·양적 연구
	2) 동아리	
	기타정책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기타	1) 문헌 연구	(1) 음악교육의 방안 연구
		(2) 기타
	2) 질적·양적 연구	(1) 상관관계 연구
		(2) 인식 조사
		(3) 실태 및 방안 연구

본 연구는 6년간 제출된 3,160편의 방대한 양의 논문을 분류함에 따라 이전보다 다양한 논제가 연구의 주제로 등장하여 17가지 분류기준을 만들었다. 음악교육철학과 음악교육심리는 이론적 연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음악교육론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특수음악교육 영역에서는 특수교육의 대상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음악치료를 영재교육, 특수

교육과 함께 배치하였다. 교수·학습방법 영역에서는 음악교수법과 교육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방법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부항목을 제시하였다. 연구기간에 논문편수가 급증하여 새로운 논제의 경향을 보인 통합학습은 기타지도와 함께 하나의 영역으로 제시하였으며, 다문화 연구 역시 논문편수가 급증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특기적성 및 동아리 연구는 정규교육과정 외 음악활동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며, 기타정책과 함께 국가정책 영역으로 함께 제시하였다. 기타 영역은 앞의 16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논문으로, 논제의 종류에 따라 세부항목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논문을 분류함에 있어서 연구의 논제가 분류기준에서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비중이 큰 쪽으로 분류하였다.

IV. 연구 분석 및 결과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도출된 분류기준을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3,160편에 적용하여 최근 6년(2010년~2015년)간 영역별 연구동향, 영역에 의한 연도별, 지역별, 학교별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1. 영역별 연구동향 분석

가. 영역별 연구동향의 전체적인 분석

본 연구의 분류기준을 적용한 영역별 논문 분석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영역별 연구동향의 전체적인 분석

분류기준		논문편수		백분율(%)	
1. 음악교육론	음악교육철학	103편	284편	3.3%	9%
	음악교육심리	181편		5.7%	
2.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교육과정	49편	375편	1.5%	11.9%
	교과서·지도서	326편		10.3%	
3. 특수음악교육		80편		2.5%	
4. 음악교육공학		97편		3.1%	
5. 교수·학습 방법	음악교수법	97편	149편	3.1%	4.7%
	교수·학습 방법	52편		1.6%	
6.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통합학습	161편	361편	5.1%	11.4%
	기타지도	200편		6.3%	
7. 가창		171편		5.4%	
8. 기악		382편		12.1%	
9. 감상		257편		8.1%	
10. 창작		84편		2.7%	
11. 국악		299편		9.5%	
12. 다문화		97편		3.1%	
13. 유아음악교육		120편		3.8%	
14. 음악교육평가		29편		0.9%	
15. 음악교사		40편		1.3%	
16. 국가정책	정규 교육과정 외 음악활동	124편	137편	3.9%	4.3%
	기타정책	13편		0.4%	
17. 기타		198편		6.3%	
총합		3,160편		100%	

<표 IV-1>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수집된 논문을 영역별로 분류한 결과, 기악 영역이 382편(12.1%)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영역이 375편(11.9%),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영역이 361편(11.4%)으로 뒤를 이었다. 기악 영역은 그간의 선행연구에서도 상위 영역으로 집계되었으나,

교육과정 영역의 압도적인 편수에 늘 못 미쳤던 영역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편수의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기악 영역이 교육과정 영역을 앞지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이전보다 악기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영역은 선행연구에서 영역으로 분류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합학습이 161편(5.1%), 기타지도가 200편(6.3%)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하나의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전체 17개의 영역에서 300편대의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으로는 기악,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국악 영역이 있다. 국악 영역은 선행연구에서도 상위 영역으로 집계되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 고조 및 국민의 정체성 함양 등의 영향으로 국악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철학과 심리를 하나의 영역으로 엮은 음악교육론과 감상, 기타 영역은 200편대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문화 영역은 선행연구에서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이번 연구기간에는 97편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여 비중있는 영역으로 급부상하였다. 반면, 평가 영역은 29편(0.9%), 교사 영역은 40편(1.3%)으로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론 연구인 음악교육론에 비하여 가창, 기악, 감상, 창작, 국악 등 실기 연구의 여러 영역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음악교육론은 선행연구의 10.4%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였으며, 5개의 실기 영역은 37.8%로 선행연구의 27%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음악교육의 본질을 다루는 이론 연구는 타 연구의 근본이 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 있어서도 비중있는 영역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영역별 연구동향 분석

본 연구에서 정립한 17개의 분류기준에 대하여 영역별로 세부항목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1) 음악교육론 영역

음악교육론 영역은 총 284편(9%)이며, 음악교육철학 영역과 음악교육심리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관한 논문을 정리하였다. 먼저, 음악교육철학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2>로 제시하였다.

<표 IV-2> 음악교육철학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음악교육철학 및 심미적 관점	36	35
2) 교육철학 및 사상가	23	22.3
3) 음악교육과 인간형성	44	42.7
총합	103	100

<표 IV-2>와 같이 음악교육철학 영역은 음악교육철학 및 심미적 관점, 교육철학 및 사상가, 음악교육과 인간형성으로 분류하였다. 음악교육철학 및 심미적 관점은 엘리엇과 리머의 사상과 미학 및 심미적 관점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교육철학 및 사상가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루소, 페스탈로치, 듀이, 슈타이너, 발도르프 학교, 홀리스틱 사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음악교육과 인간형성은 음악을 활용한 다양한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영역의 논문은 103편으로 전체 연구의 3.3%를 차지한다. 선행연구²³⁾에

23) 김송미(2011). 전계서. (2008년부터 2010년 2월까지 1,367편의 논문을 분석함)

서는 1.8%의 비율에 그쳤으나, 다양한 논제가 등장하여 연구가 증가하였다. 세부항목에서 음악교육과 인간형성은 44편으로 영역 내 가장 많은 42.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교육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교육철학 및 사상가는 23편으로 영역 내 22.3%를 차지하였다. 철학 및 사상에 관한 연구는 교육 발전에 필수적인 요인이므로 차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악교육심리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3>으로 제시하였다.

<표 IV-3> 음악교육심리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인지적 측면	103	56.9
2) 정의적 측면	78	43.1
총합	181	100

<표 IV-3>과 같이 음악교육심리 영역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인지적 측면은 인지발달이론, 구성주의, 메타인지, 정보처리이론 등에 관한 연구를 정리한 발달·학습 이론 연구와 지능, 창의성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의적 측면은 동기, 자아, 사회성, 정서 및 감정, 음악성 및 음악적 경험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영역의 논문은 181편으로 전체 연구의 5.7%를 차지한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8.6%가 이루어진 데 비하여 연구가 감소한 것이다. 세부항목에서 인지적 측면은 103편으로 영역 내 56.9%를 차지하며, 그 중 지능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정의적 측면에서는 동기, 자아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음악성 및 음악적 경험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였다. 하지만 음악 교과의 고유한 특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음악성 및 음악적 경험을 다루는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영역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영역은 375편(11.9%)으로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 영역과 교과서·지도서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관한 논문을 정리하였다. 먼저, 교육과정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4>로 제시하였다.

<표 IV-4> 교육과정 영역의 분류 결과²⁴⁾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한국 교육과정	(1) 유아·초등	6	39	12.3	79.6
	(2) 중등	23		46.9	
	(3) 대학교·대학원	10		20.4	
2) 외국 교육과정		10		20.4	
총합		49		100	

<표 IV-4>와 같이 교육과정 영역은 한국 교육과정과 외국 교육과정으로 분류하였고, 한국 교육과정은 대상별로 유아·초등, 중등, 대학교·대학원의 항목으로 재분류하였다. 한국 교육과정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공존하는 시기적 특성이 반영되어 각각의 교육과정을 분석·비교하는 연구, 변천에 관한 연구, 인식·실태·조사 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외국 교육과정 연구는 국가별로 교육과정을 분석하거나 한국 교육과정과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영역의 논문은 49편으로 전체 연구의 1.5%를 차지한다. 세부항목에서 한국 교육과정에 관한 논문은 39편으로 영역 내 79.6%를 차지하며, 그 중 중등 교육과정에 관한 논문이 46.9%로 가장 많았고, 유아·초등 교육과정에 관한 논문이 12.3%로 가장 적었다. 외국 교육과정은 10편으로 영역 내

24) 교육과정 영역의 세부항목 중 한국 교육과정 내에서 논문편수가 적은 유아·초등을 하나의 항목으로, 과 대학교·대학원을 하나의 항목으로 합하였다.

20.4%를 차지한다.

교과서·지도서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5>로 제시하였다.

<표 IV-5> 교과서·지도서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가창	32	9.8
2) 기악	24	7.4
3) 감상	46	14.1
4) 창작	15	4.6
5) 국악	69	21.2
6) 다문화	34	10.4
7) 체제 및 기타 영역	87	26.7
8) 기타	19	5.8
총합	326	100

<표 IV-5>와 같이 교과서·지도서 영역은 가창, 기악, 감상, 창작, 국악, 다문화, 체제 및 기타 영역, 기타로 분류하였다. 체제 및 기타 영역은 교과서·지도서의 외형적, 내용적 체제에 대한 분석과 생활화·표현·이해 영역, 음악사, 현대음악, 대중음악 등이 포함된다. 기타에는 북한 및 외국 교과서가 포함된다.

이 영역의 논문은 326편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한다. 세부항목에서 체제 및 기타 영역은 87편으로 영역 내 가장 많은 26.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국악이 69편으로 영역 내 21.2%를 차지한다. 국악 내에서는 가창, 기악, 감상, 기타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세부연구가 이루어졌다. 또 감상이 14.1%, 다문화가 10.4%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특히 다문화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특수음악교육 영역

특수음악교육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6>으로 제시하였다.

<표 IV-6> 특수음악교육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영재교육	19	23.8
2) 음악치료	19	23.8
3) 특수교육	42	52.5
총합	80	100

<표 IV-6>과 같이 특수음악교육 영역은 영재교육, 음악치료, 특수교육으로 분류하였다. 영재교육은 음악영재를 대상으로 하며 지도방안 연구, 교육 연구, 분석연구, 인식 조사, 상관관계 연구, 실태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음악치료는 학습장애, ADHD, 정서·행동장애, 자폐, 학습부진, 부적응, 우울증의 문제를 다루거나 대안학교, 노인, 상담사례, 기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방안 연구, 프로그램 개발, 상관관계 연구, 기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수교육은 학습장애, ADHD, 정서·행동장애, 자폐, 청각·시각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척추손상장애를 가진 학생과 특수학교, 통합교육을 대상으로 하며, 지도방안 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 연구, 상관관계 연구, 실태 조사, 기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영역의 논문은 80편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세부항목에서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특수교육이 42편으로 영역 내 가장 높은 52.5%를 차지한다. 영재교육과 음악치료는 각각 19편으로 전체의 23.8%를 차지한다. 음악치료학과의 따로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교육학과에서 음악치료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개설된 음악치료 수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음악교육공학 영역

음악교육공학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7>로 제시하였다.

<표 IV-7> 음악교육공학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지도방안 연구	(1) ICT 및 스마트 교육	35	78.4
	(2) 프로그램 활용	22	
	(3) 자료 활용	9	
	(4) 기타	10	
2) 질적·양적 연구		13	13.4
3) 문헌 연구		8	8.2
총합		97	100

<표 IV-7>과 같이 음악교육공학 영역은 지도방안 연구, 양적·질적 연구, 문헌 연구로 분류하였다. 지도방안 연구에서 ICT 및 스마트 교육은 ICT 활용 교육과 스마트 기기 활용을 포함한 스마트 교육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활용은 음악 관련 프로그램(큐베이스, 피날레, FPA, Encore, Band in a Box, NWC, Nuendo, VSTI, MIDI, Nintendo, 그 외 음악 프로그램)과 기타 프로그램(프레지, UCC)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료 활용은 시청각 자료, 멀티미디어 자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양적·질적 연구는 실태 조사, 상관관계 연구, 기타 분석·조사 연구가 이루어졌고, 문헌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 방안, 기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영역의 논문은 97편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하며, 이전 연구에서 4.3%가 이루어진 데 비하여 연구가 조금 감소하였다. 세부항목에서 지도방안 연구는 76편으로 영역 내 가장 많은 78.4%를 차지하며, 그 중 ICT 및 스마트 교육이 36.1%, 프로그램 활용이 22.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개발 및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문헌 연구는 8편에 그쳤다.

5) 교수·학습 방법 영역

교수·학습 방법 영역은 149편(4.7%)으로 가창, 기악, 감상, 창작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 중에서 음악교수법과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음악교수법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8>로 제시하였다.

<표 IV-8> 음악교수법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전통적 음악교수법	64	66
2) 현대 음악교수·학습 이론	33	34
총합	97	100

<표 IV-8>과 같이 음악교수법 영역은 전통적 음악교수법과 현대 음악교수·학습 이론으로 분류하였다. 전통적 음악교수법은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고든의 교수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현대 음악교수·학습 이론은 포괄적 음악교육, Arts propel 모형, 생성적 음악교수이론, 통합적 음악학습 이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영역의 논문은 97편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세부항목에서 전통적 음악교수법은 64편으로 영역 내 66%로, 현대 음악교수·학습 이론 연구보다 약 2배 가량 많았다. 또한 이전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다양한 음악교육 방법과 이론을 적용한 지도방안 연구가 증가하였다.

교수·학습 방법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9>로 제시하였다.

<표 IV-9> 교수·학습 방법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공동학습모형	34	65.4
2) 구성주의	8	15.4
3) 표상이론	7	13.5
4) ASSURE 모형	3	5.8
총합	52	100

<표 IV-9>와 같이 교수·학습 방법 영역은 지도방안 연구를 분류한 것으로, 공동학습모형, 구성주의, 표상이론, ASSURE 모형으로 분류하였다. 공동학습모형은 협동학습, 자율적 협동학습(Co-op Co-op), Jigsaw 모형, 문제중심학습(PBL)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영역의 논문은 52편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한다. 세부항목에서 공동학습모형을 적용한 지도방안은 34편으로 영역 내 가장 높은 65.4%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교육과정에서 협동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ASSURE 모형은 3편으로 5.8%로 영역 내 가장 비율이 낮았다.

6)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영역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영역은 361편(11.4%)으로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전 연구에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통합학습에 관한 연구가 본 연구기간 동안 크게 증가하여 기타지도 연구와 함께 한 영역으로 합하였다. 통합학습 영역은 학습자가 총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교수·학습을 재구성한 연구로, 통합학습이론, 교과 간 통합, 통합교과, 통합교육과정 등을 적용한 논문을 정리하였다. 기타지도 영역은 가창, 기악, 감상, 창작, 국악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영역에 속하는 지도에 관한 논문을 정리하였다. 먼저, 통합학습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10>로 제시하였다.

<표 IV-10> 통합학습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지도방안 연구	(1) 교과 통합	69	155	42.9	96.3
	(2) 국악	30		18.6	
	(3) 학습형태별	20		12.4	
	(4) 기타	36		22.3	
2) 통합학습 관련 문헌 연구		3		1.8	
3) 양적·질적 연구		3		1.8	
총합		161		100	

<표 IV-10>과 같이 통합학습 영역은 지도방안 연구, 통합학습 관련 문헌 연구로 분류하였다. 지도방안 연구는 교과통합, 국악, 학습형태별, 기타로 재분류하였으며, 기타에서는 다문화, 음악장르별, 통합학습 관련 이론 적용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통합학습 관련 문헌 연구는 교육 연구, 기타 문헌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양적·질적 연구는 상관관계 연구,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영역의 논문은 161편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세부항목에서 지도방안 연구는 155편으로 영역 내 96.3%를 차지하며, 그 중 교과 통합이 42.9%로 가장 많았다. 교과 통합은 국어·문학, 사회, 역사, 미술, 체육, 과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음악과 미술을 통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교과 통합은 교육과정이 변화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지도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11>로 제시하였다.

<표 IV-11> 기타지도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음악 장르에 의한 지도방안 연구	(1) 현대음악	25	76	12.5	38
	(2) 대중음악	18		9	
	(3) 기타	33		16.5	
2) 학습내용에 의한 지도방안 연구	(1) 음악이론별	27	49	13.5	24.5
	(2) 영역별	22		11	
3) 활용에 의한 지도방안 연구		41		20.5	
4) 시창·청음·초견 연구		14		7	
5) 기타 지도방안 연구		20		10	
총합		200		100	

<표 IV-11>과 같이 기타지도 영역은 음악 장르에 의한 지도방안 연구, 학습내용에 의한 지도방안 연구, 활용에 의한 지도방안 연구, 시창·청음·초견 연구, 기타 지도방안 연구로 분류하였다. 음악장르에 의한 지도방안 연구는 현대음악, 대중음악, 기타로 재분류하였고, 기타는 재즈, 뮤지컬, 오페라, 기타 장르가 포함된다. 학습내용에 의한 지도방안 연구는 음악이론별, 영역별로 재분류하였고, 음악이론별에서는 기초이론, 리듬, 즉흥표현, 지휘, 기타 요소의 연구가 포함되며, 영역별에서는 생활화, 음악사, 전체적인 영역의 연구가 포함된다. 활용에 의한 지도방안 연구는 심상, 도상자료, 스토리텔링, 놀이, 기타 요소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시창·청음·초견 연구는 지도방안 연구, 교재 연구, 상관관계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기타 지도방안 연구는 특정 대상, 저작권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영역의 논문은 200편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였다. 세부항목에서 음악장르에 의한 지도방안 연구는 76편으로 영역 내 가장 높은 38%를 차지하며, 시창·청음·초견 연구가 14편으로 영역 내 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7) 가창 영역

가창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12>로 제시하였다.

<표 IV-12> 가창 영역의 분류 결과²⁵⁾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합창	(1) 지도방안 연구	48	69	28.1	40.4
	(2) 질적·양적 연구	12		7.1	
	(3) 문헌 연구	9		5.2	
2) 가창	(1) 지도방안 연구	62	102	36.3	59.6
	(2) 변성기·발성 연구	18		10.5	
	(3) 문헌 연구	18		10.5	
	(4) 질적·양적 연구	4		2.3	
총합		171		100	

<표 IV-12>와 같이 가창 영역은 합창과 가창으로 분류하였고, 합창은 지도방안 연구, 질적·양적 연구, 문헌 연구로 재분류하였다. 질적·양적 연구는 합창단 실태 조사, 상관관계 연구가 이루어졌다. 가창은 지도방안 연구, 변성기·발성 연구, 문헌 연구, 질적·양적 연구로 재분류하였으며, 문헌 연구는 교재 개발, 악곡 연구, 방안 연구, 기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영역의 논문은 171편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이전 연구에서 4.6%가 이루어진 데 비하여 연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세부항목에서 합창은 69편으로 영역 내 40.4%를 차지하며, 그 중 지도방안이 28.1%로 가장 많았다. 가창은 102편으로 영역 내 59.6%를 차지하며, 마찬가지로 지도방안 연구가 36.3%로 가장 많았다.

25) 가창 영역의 세부항목 중 논문편수가 적은 변성기·발성 연구는 하나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8) 기악 영역

기악 영역은 전체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이며, 이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13>으로 제시하였다.

<표 IV-13> 기악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건반악기	105	27.5
2) 현악기	65	17
3) 관악기	70	18.3
5) 오케스트라 및 합주	72	18.8
6) 기타	70	18.3
총합	382	100

<표 IV-13>과 같이 기악 영역은 건반악기, 현악기, 관악기, 오케스트라 및 합주, 기타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각 항목별로 지도방안 연구, 문헌 연구, 질적·양적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기타는 학교수업에 활용되는 악기로 리코더, 오카리나, 핸드벨과 기타 타악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영역의 논문은 총 382편으로 전체의 12.1%를 차지하며, 이전 연구에서 9.1%가 이루어진 데 비하여 연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세부항목에서 건반악기 연구가 105편으로 영역 내 가장 많은 27.5%를 차지하며, 현악기가 65편으로 17%를, 관악기와 기타가 70편으로 18.3%를, 오케스트라 및 합주가 72편으로 18.8%를 차지한다. 기악 영역은 이전 연구에서도 항상 높은 비율을 차지해온 영역이며, 점차 오케스트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기악 영역 전체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논문 주제 선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전공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악기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이 영역의 연구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9) 감상 영역

감상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14>로 제시하였다.

<표 IV-14> 감상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지도방안 연구	(1) 음악 장르별	126	246	49.1	95.7
	(2) 학습형태별	93		36.3	
	(3) 기타	27		10.5	
2) 질적·양적 연구		11		4.2	
총합		257		100	

<표 IV-14>와 같이 감상 영역은 지도방안 연구와 질적·양적 연구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지도방안 연구는 음악 장르별, 학습형태별, 기타로 재분류하였다. 음악 장르별로 성악곡, 독주, 합주, 현대음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학습형태별로 특정주제별, 다양한 요소 활용, 이론 적용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질적·양적 연구는 상관관계 연구, 인식 조사, 실태 및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영역의 논문은 257편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이전 연구의 5.8%에 비하여 연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세부항목에서 지도방안 연구는 246편으로 영역 내 95.7%에 달하며, 음악장르에서 현대음악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지도방안 연구의 항목을 통하여 감상 연구가 작품 외에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연구의 다양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0) 창작 영역

창작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15>로 제시하였다.

<표 IV-15> 창작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지도방안 연구	77	91.7
2) 기타	7	8.4
총합	84	100

<표 IV-15>와 같이 창작 영역은 지도방안 연구와 기타로 분류하였다. 지도방안 연구는 연계 학습, 다양한 요소 활용, 이론 적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기타는 악곡 분석과 연구 동향의 문헌 연구와 상관관계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영역의 논문은 84편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며, 이전 연구의 1.9%에 비하여 연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세부항목에서 지도방안이 77편으로 영역 내 91.7%를 차지하며, 음악요소나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한 지도방안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창작은 오늘날 교육이 중요시 여기는 창의성과 관련 깊은 요소로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1) 국악 영역

국악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16>으로 제시하였다.

<표 IV-16> 국악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지도방안 연구	(1) 가창	11
	(2) 기악	22.1
	(3) 감상	9.4
	(4) 창작	3.3
	(5) 학습형태별	25.4
	(6) 기타	6.4
2) 문헌 연구	39	13
3) 질적·양적 연구	28	9.4
총합	299	100

<표 IV-16>과 같이 국악 영역은 지도방안 연구, 문헌 연구, 질적·양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지도방안 연구는 가창, 기악, 감상, 창작, 학습형태별, 기타로 재분류하였고, 학습형태별로는 작품 지도, 다양한 요소 활용, 이론 적용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헌 연구에는 작품 분석, 교재·교본 연구, 연주법, 기보법·기호법, 기타 문헌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질적·양적 연구에는 상관관계 연구, 인식 조사, 실태 및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영역의 논문은 299편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며, 선행연구의 7.5%에 비하여 연구가 증가하였다. 세부항목에서 지도방안 연구는 232편으로 영역 내 77.6%를 차지하며, 그 중 학습형태별 지도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기악이 22.1%로 가야금, 거문고, 단소, 대금, 사물·풍물놀이, 소금, 아쟁, 피리, 향피리, 해금, 기타 합주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악 연구는 교육과정에서 전통음악에 대한 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연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2) 다문화 영역

다문화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17>로 제시하였다.

<표 IV-17> 다문화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지도방안 연구	(1) 가창	39	79	40.2	81.4
	(2) 기악·감상·창작	8		8.3	
	(3) 기타	32		33	
2) 문헌 연구		6		6.2	
3) 질적·양적 연구		12		12.3	
총합		97		100	

<표 IV-17>과 같이 다문화 영역은 다문화에 관한 연구가 전체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이전 연구와 달리 새롭게 추가한 영역이다. 이 영역은 지도방안 연구, 문헌 연구, 질적·양적 연구로 분류하였으며, 지도방안 연구는 가창, 기악·감상·창작, 기타로 재분류하였다. 문헌 연구에는 교재 연구와 기타 문헌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질적·양적 연구에는 상관관계 연구, 인식 조사, 실태 및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문화 영역의 논문은 97편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세부영역에서 지도방안이 79편으로 영역 내 81.4%를 차지하였고, 그 중 가창이 40.2%로 가장 많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문화가 섞여 있으며, 다문화 학생 수는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²⁶⁾ 이에 따라 다문화를 포용하기 위한 여러 정책과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다문화를 잘 정착시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도 다문화에 관한 내용을 언급함에 따라 다양한 교육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음악 교육에서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13) 유아음악교육 영역

유아음악교육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18>로 제시하였다.

<표 IV-18> 유아음악교육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인간형성 및 심리 관련 연구	12	10
2) 기악	33	27.5
3) 질적·양적 연구	26	21.7
4) 기타 교육 연구	49	40.8
총합	120	100

<표 IV-18>과 같이 유아음악교육 영역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

26) 교육통계연구센터(<http://kess.chedi.re.kr/index> 2016.11.8 20:15 접속)

를 정리한 것으로, 인간형성 및 심리 관련 연구, 기악, 질적·양적 연구, 기타 교육 연구로 분류하였다. 기악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관련 연구이며, 질적·양적 연구는 상관관계 연구, 인식 조사, 실태 및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다. 기타 교육 연구는 가창, 국악, 기타 이론을 적용한 지도, 교육 연구 및 지도방안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영역의 논문은 120편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한다. 세부항목에서 기타 교육 연구가 49편으로 영역 내 가장 많은 40.8%를 차지하였다. 또한 기악 항목은 33편으로 영역 내 27.5%를 차지하였으며, 피아노교육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 유아음악교육 연구는 음악적 능력 발전에 있어서 연령의 한계가 있다는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기교육열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지능의 균형적인 발달을 가져오는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화·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4) 음악교육평가 영역

음악교육평가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19>로 제시하였다.

<표 IV-19> 음악교육평가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수행평가	15	51.7
2) 기타 평가 개발	12	41.4
3) 질적·양적 연구	2	6.8
총합	29	100

<표 IV-19>와 같이 음악교육평가 영역은 수행평가, 기타 평가 개발, 질적·양적 연구로 분류하였으며, 수행평가에는 포트폴리오, Arts propel 연구

가 이루어졌다.

이 영역의 논문은 29편으로 전체의 0.9%를 차지하며, 이전의 1.8%에 비하여 연구 비율이 감소하였다. 세부항목에서 수행평가는 15편으로 영역 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평가는 수업에서 계획-실행-평가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습방법·지도방안 연구에 비하여 그 수가 현저히 낮다. 이는 이미 이전 연구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안으로 앞으로는 교육과정에서 균형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15) 음악교사 영역

음악교사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20>으로 제시하였다.

<표 IV-20> 음악교사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문헌 연구	14	35
2) 질적·양적 연구	26	65
총합	40	100

<표 IV-20>과 같이 음악교사 영역은 문헌 연구와 질적·양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문헌연구는 교사교육, 교원시험 분석, 사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질적·양적 연구에는 상관관계 연구, 인식 조사, 실태 및 방안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영역의 논문은 40편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며, 이전 연구의 1.8%에 비하여 연구 비율이 약간 감소하였다. 문헌 연구보다는 질적·양적 연구가 더 많았으며, 특히 인식 조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문헌 연구에서 특히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 영역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16) 국가 정책 영역

국가 정책 영역은 137편(4.3%)으로 정규 교육과정 외 음악활동 영역과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롭게 등장한 기타 정책 영역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관한 논문을 정리하였다. 먼저, 정규 교육과정 외 음악활동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21>로 제시하였다.

<표 IV-21> 정규 교육과정 외 음악활동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방과 후 특기적성	(1) 지도방안 연구	73	116	58.9	93.5
	(2) 질적·양적 연구	43		34.7	
2) 동아리		8		6.5	
총합		124		100	

<표 IV-21>와 같이 정규 교육과정 외 음악활동 영역은 방과 후 특기적성과 동아리의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방과 후 특기적성은 지도방안 연구와 상관관계 연구와 실태 조사가 포함된 질적·양적 연구로 재분류하였다.

이 영역은 124편으로 전체 3.9%를 차지하며, 이전 연구의 4.2%에 비하여 연구 비율이 약간 감소하였다. 세부항목에서 방과 후 특기적성의 연구는 116편으로 영역 내 93.5%를 차지하며, 그 중 피아노, 현악기, 관악기, 국악, 기타 악기에 관한 지도방안 연구가 58.9%를 차지한다. 교육정책의 일환으로서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방과 후 학교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타 정책 영역²⁷⁾은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자유학기제, 혁신학교에 관

27) 기타 정책 영역에서는 집중이수제, 블록타임제, 자유학기제, 혁신학교의 총 4가지 주제의 논문을 정리하였는데, 각 주제에 해당하는 논문편수가 5편 이하여서 표를 생략하였다.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총 13편으로 전체의 0.4%를 차지한다. 각 항목의 연구는 5편 이하로 이루어졌다. 집중이수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등장하였지만, 이에 대한 폐해가 너무 많아 학기당 이수과목에서 예체능 과목은 제외되었다. 집중이수제에 대한 연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만 이루어졌다. 집중이수제가 도입되면서 블록타임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졌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부터 실시되어 2016년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는 제도로서 2015년에만 4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유학기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학교는 2006년부터 전인교육을 표방하며 만든 자율학교로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7) 기타 영역

기타 영역은 앞의 16가지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논문들을 논제의 종류에 따라 세부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이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IV-22>로 제시하였다.

<표 IV-22> 기타 영역의 분류 결과

세부항목		편수(편)		백분율(%)	
1) 문헌 연구	(1) 음악교육의 방안 연구	20	81	10.1	40.9
	(2) 기타	61		30.8	
2) 질적·양적 연구	(1) 상관관계 연구	31	117	15.7	59.1
	(2) 인식 조사	21		10.6	
	(3) 실태 및 방안 연구	65		32.8	
총합		198		100	

<표 IV-22>와 같이 기타 영역은 문헌 연구와 질적·양적 연구로 분류한

후, 문헌 연구에서 음악교육의 방안 연구와 기타로 재분류하였다. 기타는 악곡 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구·교재 연구, 기독교 음악, 군악대, 기타 문헌 연구가 이루어졌다. 질적·양적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연구, 인식 조사, 실태 및 방안 연구로 재분류하였다.

이 영역은 198편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세부항목에서 문헌 연구보다 질적·양적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며, 질적·양적 연구의 실태 및 방안 연구는 65편으로 영역 내 32.8%를 차지하였다. 또 문헌 연구의 기타 연구는 61편으로 영역 내 30.8%를 차지하였다. 기타 영역은 음악교육연구의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음악교육과의 연계성을 찾기 어려운 연구는 지양해야 될 것이다. 교육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음악교육과 연관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학문적으로 더욱 깊이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영역에 의한 연도별 연구동향 분석

최근 6년(2010년~2015년)간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3,160편을 영역에 의하여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IV-23>으로 제시하였다.

<표 IV-23> 영역에 의한 연도별 연구동향 분석²⁸⁾

분류의 기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음악교육론		50	44	41	41	48	60
		8.2	7.4	7.5	8.4	10.5	12.9
2.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78	79	65	49	57	47
		12.8	13.3	11.9	10	12.5	10.1
3. 특수음악교육		18	12	20	16	7	7
		3	2	3.7	3.3	1.5	1.5
4. 음악교육공학		16	17	17	16	20	11
		2.6	2.9	3.1	3.3	4.4	2.4
5. 교수·학습 방법		39	36	21	17	17	19
		6.4	6.1	3.9	3.5	3.7	4.1
6.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65	74	69	60	50	43
		10.7	12.4	12.7	12.3	10.9	9.2
7. 가창		34	27	25	34	21	30
		5.6	4.5	4.6	7	4.6	6.4
8. 기악		74	68	57	57	59	67
		12.2	11.4	10.5	11.7	12.9	14.4
9. 감상		47	56	41	35	35	43
		7.7	9.4	7.5	7.2	7.7	9.2
10. 창작		18	14	16	10	9	17
		3	2.4	2.9	2	2	3.6
11. 국악		47	52	61	52	41	46
		7.7	8.7	11.2	10.6	9	9.9
12. 다문화		17	24	17	16	14	9
		2.8	4	3.1	3.3	3.1	1.9
13. 유아음악교육		23	33	27	13	15	9
		3.8	5.5	5	2.7	3.3	1.9
14. 음악교육평가		7	4	4	7	3	4
		1.2	0.7	0.7	1.4	0.7	0.9
15. 음악교사		4	7	7	8	5	9
		0.7	1.2	1.3	1.6	1.1	1.9
16. 국가정책		17	19	24	27	26	24
		2.8	3.2	4.4	5.5	5.7	5.2
17. 기타		54	29	33	31	30	21
		8.9	4.9	6.1	6.3	6.6	4.5
총합	편수(편)	608	595	545	489	457	466
	백분율(%)	100	100	100	100	100	100

<표 IV-23>은 연도별로 각 영역에서 연구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특히 연도별로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은 진한 셀로 표시를 하였다. 영역별 연구

28) 진한 셀로 표시된 논문편수와 백분율은 연도별로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을 나타낸다.

동향의 전체적인 분석²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범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은 기악,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순으로 집계되었다. 위의 표에 따르면, 이 세 개의 영역은 거의 매해 10%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0·2011년에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영역이, 2012·2013년에는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영역이, 2014·2015년에는 기악 영역이 그 해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또한 교수·학습 방법, 가창, 기악, 창작, 음악교육평가, 기타 영역은 2010년에,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감상, 다문화, 유아음악교육 영역은 2011년에, 특수음악교육, 국악 영역은 2012년에, 가창, 음악교육평가, 국가정책 영역은 2013년에, 음악교육공학 영역은 2014년에, 음악교육론, 음악교사 영역은 2015년에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

전체적인 논문편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2015년에 들어서 영역별 편수는 대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음악교육론, 가창, 기악, 감상, 교사, 정책 영역의 편수는 전체 연도의 평균 편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양성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교육기관 평가가 실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대학원의 인원과 연구의 양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연구의 전범위에 걸친 양질의 연구가 더욱 요구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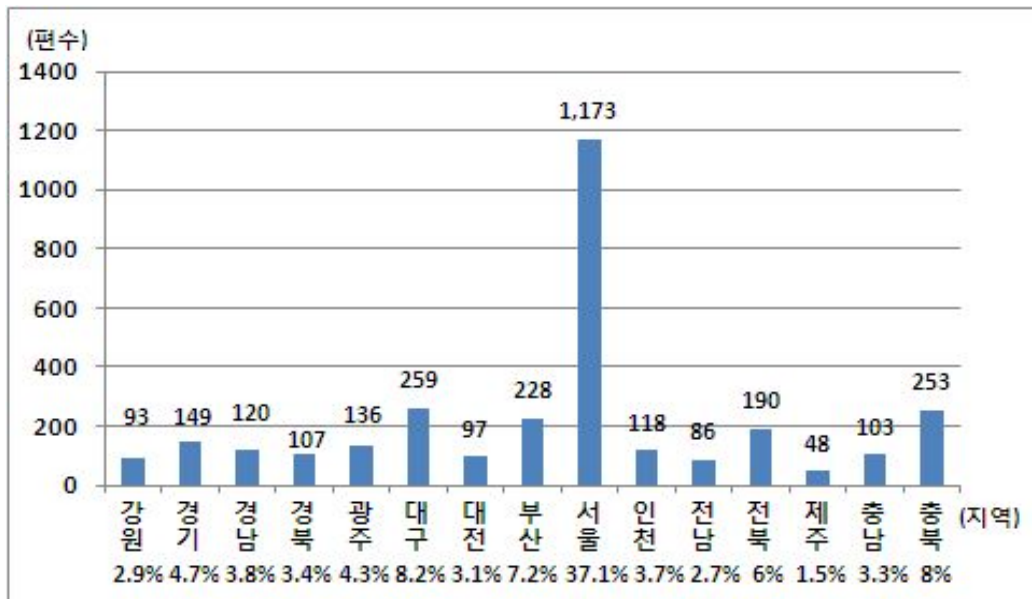
29) 본문 pp.26-29 참조.

3. 영역에 의한 지역별, 학교별 연구동향 분석

가. 영역에 의한 지역별 연구동향의 분석

전국 15개 시·도에 따른 교육대학원 및 음악교육전공 현황³⁰⁾을 토대로 하여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3,160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그래프 IV-1>로 제시하였다.

<그래프 IV-1> 영역에 의한 지역별 연구동향의 분석



<그래프 IV-1>에 따르면 서울이 1,173편으로 전체의 37.1%를 차지하여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압도적인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 지역은 15개 시·도 중 음악교육전공이 설치된 교육대학원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논문편수 역시 다른 지역의 배에 달하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

30) 본문 pp.12-16 참조.

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배출되어 전체의 34.9%를 차지하였는데, 본 연구기간 동안 그 비율이 더 증가하였다. 서울에 이어 대구 259편(8.2%), 충북 253편(8%), 부산 228편(7.2%)의 순으로 논문이 배출되었다. 반면 강원, 대전, 전남, 제주 지역은 100편이 안 되는 논문을 배출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적 혜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역에 의한 지역별 연구동향의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IV-24>로 제시하였다.

<표 IV-24> 영역에 의한 지역별 연구동향의 분석³¹⁾

영역 지역	음악 교과 론	교육 과정	특수	공학	교수 학습	통합 및 지도	가창	기악	감상	창작	국악	다 문 화	유아	평가	교사	정책	기타
강원	7	15	3	2	2	6	4	19	8	3	2	0	5	1	0	5	11
	7.5	16.1	3.2	2.2	2.2	6.5	4.3	20.4	8.6	3.2	2.2	0	5.4	1.1	0	5.4	11.8
경기	11	24	2	6	10	9	3	37	14	4	4	4	6	0	1	10	4
	7.4	16.1	1.3	4	6.7	6	2	24.8	9.4	2.7	2.7	2.7	4	0	0.7	6.7	2.7
경남	13	22	4	1	6	10	8	9	7	1	8	5	13	0	1	4	8
	10.8	18.3	3.3	0.8	5	8.3	6.7	7.5	5.8	0.8	6.7	4.2	10.8	0	0.8	3.3	6.7
경북	6	29	1	3	2	7	7	13	5	1	10	3	10	0	0	4	6
	5.6	27.1	0.9	2.8	1.9	6.5	6.5	12.1	4.7	0.9	9.3	2.8	9.3	0	0	3.7	5.6
광주	9	17	4	5	5	15	9	16	13	1	18	4	0	2	0	8	10
	6.6	12.5	2.9	3.7	3.7	11	6.6	11.8	9.6	0.7	13.2	2.9	0	1.5	0	5.9	7.4
대구	24	23	5	9	11	27	18	25	32	6	13	21	21	3	3	8	10
	9.3	8.9	1.9	3.5	4.2	10.4	6.9	9.7	12.4	2.3	5	8.1	8.1	1.2	1.2	3.1	3.9
대전	14	15	5	2	3	25	3	3	5	1	4	2	4	1	1	1	8
	14.4	15.5	5.2	2.1	3.1	25.8	3.1	3.1	5.2	1	4.1	2.1	4.1	1	1	1	8.2
부산	25	41	5	10	8	14	16	30	19	5	24	4	6	1	0	12	8
	11	18	2.2	4.4	3.5	6.1	7	13.2	8.3	2.2	10.5	1.8	2.6	0.4	0	5.3	3.5
서울	112	138	29	38	62	152	54	115	78	36	123	40	23	13	22	55	83
	9.5	11.8	2.5	3.2	5.3	13	4.6	9.8	6.6	3.1	10.5	3.4	2	1.1	1.9	4.7	7.1
인천	19	7	4	3	8	16	9	4	2	6	22	3	0	1	7	1	6
	16.1	5.9	3.4	2.5	6.8	13.6	7.6	3.4	1.7	5.1	18.6	2.5	0	0.8	5.9	0.8	5.1
전남	7	4	4	0	4	5	10	18	7	5	3	3	4	0	0	6	6
	8.1	4.7	4.7	0	4.7	5.8	11.6	20.9	8.1	5.8	3.5	3.5	4.7	0	0	7	7
전북	17	13	6	5	10	10	3	31	14	2	30	1	19	0	1	9	19
	8.9	6.8	3.2	2.6	5.3	5.3	1.6	16.3	7.4	1.1	15.8	0.5	10	0	0.5	4.7	10
제주	0	7	0	1	1	6	3	11	5	4	1	1	2	1	0	3	2
	0	14.6	0	2.1	2.1	12.5	6.3	22.9	10.4	8.3	2.1	2.1	4.2	2.1	0	6.3	4.2
충남	7	7	3	7	4	6	6	33	7	2	6	2	1	1	1	5	5
	6.8	6.8	2.9	6.8	3.9	5.8	5.8	32	6.8	1.9	5.8	1.9	1	1	1	4.9	4.9
충북	13	13	5	5	13	53	18	18	41	7	31	4	6	5	3	6	12
	5.1	5.1	2	2	5.1	20.9	7.1	7.1	16.2	2.8	12.3	1.6	2.4	2	1.2	2.4	4.7
총합	284	375	80	97	149	361	171	382	257	84	299	97	120	29	40	137	198

31) 각 지역별로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의 논문편수와 백분율을 진한 셀로 표시하였다.

<표 IV-24>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연구 영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강원, 경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지역은 기악 영역, 경남, 경북, 부산 지역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영역, 광주, 인천 지역은 국악 영역, 대구 지역은 감상 영역, 대전, 서울, 충북 지역은 통합 및 지도 영역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배출되었다. 영역별 연구동향 분석³²⁾에서 상위 영역으로 집계된 기악 영역(12.1%),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영역(11.9%),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영역(11.4%)은 12개의 지역에서 지역 내 가장 많은 논문이 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된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영역은 기존 연구와 다르게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음악교육연구의 새로운 시대적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이 영역의 연구편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연구의 차별화를 통한 학문의 발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역에 의한 지역별 논문편수는 비교적 각 영역의 전체 논문편수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음악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적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연구가 저조한 평가, 교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이 고루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영역에 의한 학교별 연구동향의 분석

2016년 현재, 음악교육전공 및 초등음악교육전공이 설치된 학교는 총 49개교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된 석사학위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현재 음악교육전공이 폐지된 4개교(경남대학교, 고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대전대학교)의 논문이 포함되어 논문을 배출한 학교는 총 53개교로 집계되었다.

음악교육전공이 설치된 교육대학원이 없는 울산을 제외하고, 전국을 15개

32) 본문 pp.26-27 참조.

의 시·도로 나누어 각 지역마다 학교별 논문편수를 정리한 결과, 충북 지역의 한국교원대학교가 193편(6.1%)으로 1위, 서울 지역의 경희대학교가 173편(5.5%)으로 2위, 이화여자대학교가 163편(5.2%)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이 세 학교의 각 영역에 의한 논문편수는 <표 IV-25>로 제시하였다.

<표 IV-25> 논문편수 상위 3개 학교의 영역에 의한 분석 결과³³⁾

영역 학교	음악 교육론	교육 과정	특수	공학	교수 · 학습	통합 및 지도	가창	기악	감상	창작	국악	다 문 화	유아	평가	교사	정책	기타	합계
한국 교원대	8	5	2	3	8	49	16	8	39	7	26	4	0	4	2	2	10	193 (편)
	4.1	2.6	1	1.6	4.1	25.4	8.3	4.1	20.2	3.6	13.5	2.1	0	2.1	1	1	5.2	100 (%)
경희대	12	15	3	5	11	35	7	12	22	12	11	8	4	2	1	8	5	173 (편)
	6.9	8.7	1.7	2.9	6.4	20.2	4	6.9	12.7	6.9	6.4	4.6	2.3	1.2	0.6	4.6	2.9	100 (%)
이화 여대	25	15	2	7	9	15	8	18	5	4	19	3	2	1	5	8	17	163 (편)
	15.3	9.2	1.2	4.3	5.5	9.2	4.9	11	3.1	2.5	11.7	1.8	1.2	0.6	3.1	4.9	10.4	100 (%)

<표 IV-25>에 따르면 193편의 논문을 제출한 한국교원대학교는 통합 및 지도 영역이 25.4%로 가장 많았고, 감상 영역이 20.2%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유아음악교육, 특수음악교육, 음악교사, 국가정책 영역은 연구가 매우 저조하여 논문편수가 가장 많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고르지 못한 분포를 보였다. 173편의 논문을 제출한 경희대학교는 통합 및 지도 영역이 20.2%로 가장 많았고, 감상 영역이 12.7%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음악교사, 음악교육평가는 연구가 저조하였다. 163편의 논문을 제출한 이화여자대학교는 음악교육론 영역이 15.3%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국악 영역이 각각 9.2%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특수음악교육, 유아음악교육, 음악교육평가는 연구가 저조하였다.

33) 학교별로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의 논문편수와 백분율은 진한 셀로 표시하였다.

또한 53개교 중 100편 이상의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을 배출한 학교는 총 11개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중의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의 서울 지역은 6개교, 인천 지역은 1개교, 경기 지역의 1개교로 총 8개교에서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배출하였으며, 비수도권의 충북 지역은 1개교, 경북 지역은 2개교로 총 3개교에서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배출하였다. 이처럼 지역 간 학교 수의 편차는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6년(2010년~2015년)간 전국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3,160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차후 음악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연구에 필요한 분류기준을 연구영역별로 정립하고 이를 세분화하였으며, 전국 교육대학원과 음악교육전공 및 기타 관련 전공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동향을 영역별, 영역에 의한 연도별, 지역별, 학교별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영역별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기악 영역이 382편(12.1%)으로 1위를,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영역이 375편(11.9%)으로 2위를,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영역이 361편(11.4%)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기악 영역은 상위 영역으로 집계되었지만,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영역이 늘 압도적인 편차로 가장 많은 편수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기악 영역에서 오케스트라 연구의 편수 증가 및 다양한 악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가장 많은 편수를 배출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영역에서는 한국의 중등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교육과정 영역 내에서 가장 많았고, 교과서·지도서 영역 내에서 국악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문화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였다. 또한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영역은 선행연구에서 영역으로 분류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합학습이 161편(5.1%), 기타지도가 200편(6.3%)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통합학습 영역 내에서 다양한 교과 통합에 의한 지도방안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음악과 미술을 통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타지도 영역 내에서 다양한 장르, 영역 및 요소, 활용에 의하여 다방면의 지도방안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체 17개의 영역에서 300편대의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으로는 상위 3개 영역과 더불어 국악 영역이 있는데, 국악은 음악교육 내에서 꾸준한 관심의 증가로 선행연구에서도 항상 상위 영역으로 집계되었다. 200편대의 연구가 이루어진 영역으로는 철학과 심리를 하나의 영역으로 엮은 음악교육론과 감상, 기타 영역이 있다. 한편 가창, 기악, 감상, 창작, 국악 등 실기 연구의 여러 영역이 음악교육론과 같은 이론 연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문화 영역은 음악교육에서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면서 연구가 증가하였으나, 평가 영역은 29편(0.9%), 교사 영역은 40편(1.3%)으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둘째, 영역에 의한 연도별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2010·2011년에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영역이, 2012·2013년에는 통합학습 및 기타지도 영역이, 2014·2015년에는 기악 영역이 그 해 가장 많이 연구된 영역으로 나타났다. 영역에 의한 지역별 연구동향 분석에서 15개 지역 중 서울 지역이 1,173편(37.1%)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압도적인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서울에 이어 대구 259편(8.2%), 충북 253편(8%), 부산 228편(7.2%)의 순으로 논문이 배출되었다. 영역에 의한 학교별 연구동향 분석에서 한국교원대학교가 193편(6.1%)으로 1위, 경희대학교가 173편(5.5%)으로 2위, 이화여자대학교가 163편(5.2%)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한국교원대학교와 경희대학교는 통합 및 지도 영역, 경희대학교는 음악교육론 영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53개교 중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배출한 학교는 총 11개교이며, 수도권에서 8개교, 비수도권에서 3개교로 권역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차후 연구자들이 연구 논제 선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역할을 하여 음악교육연구 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보도자료.
-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제2015-74호 [별책12].
- 교학사 출판부(2000). **새국어사전**. 서울: 교학사.
- 김갑성, 남수경, 박상완, 박영숙(2008). **교원양성기관 평가체제 정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명수(2002). "교사양성체제의 쟁점과 개편 방향",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 20. 39-59.
- 김미숙(2001). "JRME(1991년~2000년) 논문 경향에 대한 소고", **음악교육연구**, 20(1). 1-19.
- 김송미(2011).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 (2008~2010)**.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수정(2000). **한국 음악교육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의 총람 및 분석 (1966~1998)**.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포옥, 백항기(2011). **문헌분류론(개정판)**. 고양: 조은글터.
- 민경훈 외 11명(2015). **음악교육학 총론(2판)**. 서울: 학지사.
- 박수정(2016). "교육대학원 교사양성교육의 성찰과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2). 829-846.
- 석문주(2004). "음악교육의 최근 연구동향을 통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연구의 새로운 접근", **음악교육연구**, 27. 91-128.
- 신숙양(2005). **음악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의 연구 동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지은(2004). **한국 음악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의 연구동향에 대한 소고 (1999~2003)**.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재한, 한상기(2014). **문헌분류의 이해와 실제(개정판)**. 대구: 도서출판 태일사.
- 여하나(2009). 음악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2003~2007).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주성희(2016).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석사논문의 주제유형 분류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 961-976.
- 채규조(2004). 음악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경향 분석 연구-국내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을 중심으로-.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연희(2000). 음악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의 경향 분석 연구-국내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과를 중심으로-(1997.2~2000.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각 대학교 사이트.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ncic.re.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교육통계연구센터. <http://kess.kedi.re.kr/index>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e.re.kr>

ABSTRACT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Master's Thesis about Major of Music Education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From 2010 to 2015 -

Wang, Hyun Soo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3,160 master's theses in the graduate school of music education in the last 6 years(2010~2015) and to make it the basic data for the research of music education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I investig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cross the nation and the Music Education Major, and collected 3,160 theses on music education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Digital Library and each university library site. The collected theses were classified into 17 area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criteria through literature review.

Each area includes theory of music education, curriculum and

textbook·tutorial, special music education, music education engineering, teaching method·learning method, integrated learning and other instruction, singing, instrumental music, appreciation, creative writing, Korean traditional music, multiple cultures, music education evaluation, music teacher, national policy, and others. In addition, the research trends by year, region, school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research trends analysis of each area, 382 theses (12.1%) of instrumental music area, 375 theses(11.9%) of curriculum and textbook·tutorial area, 361 theses(11.4%) of integrated learning and other instruction area were counted in the top three areas. Various areas of practical studies such as singing, instrumental music, appreciation, creative music, and Korean music were more important than theoretical studies such as a theory of music education.

Second, in the analysis of yearly research trends, in 2010·2011, the curriculum and textbook·tutorial area, and in 2012·2013, the integrated learning and other instruction area, and in 2014·2015, instrumental music area were the most studied. In the analysis of regional research trends by area, 1,173 theses(37.1%) in Seoul were the most among the 15 regions, 259 theses(8.2%) in Daegu, 253 theses(8%) in Chungbuk, 228 theses(7.2%) in Busan were released in order. In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of 53 schools by the are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anked first in 193 theses(6.2%), Kyung Hee University ranked second in 173 theses(5.5%), and Ewha Womans University ranked 3rd in 163 theses(5.2%). In addition, the schools that produced more than 100

theses showed the educational gap between the 8 reg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3 regions in the non-metropolitan area.